

최근의 은행경영 환경과 과제*

李 秉 允 (研究委員, 3705-6343)

올해 초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율이 높아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외국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경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정책을 펴고 있어 은행들의 예대율 관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경기 회복이 더뎠을 경우 중소기업대출의 지속적 확대는 부실을 키울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05년 이후 국내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의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철저한 대출심사를 통해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받는 대출이자를 책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작년 가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경기가 침체되고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불거지면서 은행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2006년부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크게 확대하여 안 그래도 이에 대한 부실이 우려되었었다. 그런데 앞친데 덩친 격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은행들의 경영실적은 이 태풍에 휩쓸려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다.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작년 1분기 대비 무려 74.9%나 하락한 8000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혀둡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역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고, 부실채권비율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1.47%를 기록하였다. 작년 말에 이루어진 은행들의 자본확충 노력과 정부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등에 힘입어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은행들의 주요 대출대상인 중소기업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국내은행들이 이를 타개해 나갈 방법은 무엇인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예대율과 은행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예대율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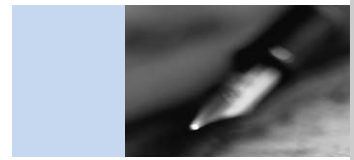
올해 초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외언론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 대비 대출액의 비율이다. 즉 은행이 예금 받은 돈 대비 얼마나 많이 대출을 해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이다. 이것이 100%에 많이 못 미치면 예금받은 돈을 놀리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은행이 제대로 영업을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100%를 크게 상회하면 예금에 비해 너무 많이 대출해 주고 있는 것이어서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우리나라 은행들은 이 예대율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올해 2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HSBC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 은행권의 예대율이 1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불거진 우리나라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부족 문제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후 나온 과도한 예대율 문제는 외국의 투자자들이 또다시 우리 경제의 시스템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

사실 우리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먼저 이코노미스트지가 제시한 예대율은 특수은행들을 포함한 모든 은행들의 평균 예대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은행과 같이 예금을 거의 받지 않아 예대율이 다른 상업은행들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정말 ‘특수한’ 은행들이 있어서 사실 외국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다. 또 CD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개인들에게 예금처럼 팔리기 때문에 예금에 포함되어도 문제가 없는데 해외 언론들은 예대율 계산 시 이를 빼버렸다. 거기다 선진국 은행들은 자산유동화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많은 대출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이 높은 이유는 수신기능이 없는 특수은행들이 있고, 대출자산 유동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정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자산을 대부분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예대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높은 예대율이 불가피한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 억울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 저것을 다 고려해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예대율이 높다고 은행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미 나간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를 얼마나 잘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예대율 자체가 아닌 것이다. 또 높은 예대율은 조금씩 낮추어 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다소 문제가 생겼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늘리고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을 해주도록 하였으며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늘리는 조건으로 이 펀드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신용경색이 극한에 이른 상황에서 중소기업대출을 시장에 그냥 맡겨두었을 경우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중소기업들도 부도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불가피했다. 은행들도 이러한 정책에 잘 호응해 주었고, 그 결과 금년 1~3월중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10%대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막는 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율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처럼 은행의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은 예대율에 부담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특히 향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경기 회복이 더더질 경우 중소기업대출의 지속적 확대는 부실만 키울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는 지속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가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을 독려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이 잘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기회복이 더더질 때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면 부실이 누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수익성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분기 이후 지속적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
향으로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크게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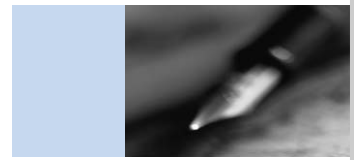
으로 악화되어 2008년에는 2007년 대비 절반 정도에 그쳤고,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74.9%가 감소한 8,000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이처럼 엄청나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업부실이 나타남에 따라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순이자마진 하락에 따른 이자이익의 감소, 펀드판매 감소 등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에서 경기침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하락한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2005년 2.8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1/4분기에는 드디어 2% 아래로 뚫고 내려온 1.91%를 기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의 이자수익이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금리인 CD금리는 2005년 중반 이후부터 2008년 10월까지 상승 행진을 이어왔다. 금리가 하락해서 순이자마진이 하락한 것은 불과 최근 몇 개월간의 일일 뿐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순이자마진이 이토록 하락한 것은 은행간의 대출경쟁에 따른 대출금리의 과도한 하락, 그리고 대출경쟁에 따라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끌어들이는 높은 금리의 시장성 수신 등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대출이자가 올라
간다는 이유로 은행들의
정당한 가격책정(pricing)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된
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는 물론 과도하게 대출경쟁을 해온 은행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 전반의 은행에 대한 인식도 이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대출경쟁을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도 거의 받지 않고 과도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할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이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은행들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여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예대마진이 커지면 언제나 국민여론은 좋지 않았다. 물론 은행들이 경쟁도 하지 않고 담합 등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대상의 리스크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일정한 예대마진을 유지하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은행들의 정당한 가격책정(pricing) 행위인 것이다. 만약 은행들이 이렇게 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적자에 허덕이다 부실화된다면 결국 공적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의 혈세가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대마진에 대해 우리는 균형잡힌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은행들이



서로 경쟁도 하지 않고 대출대상에 대한 심사도 게을리 하면서 높은 대출이자만 챙겨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하면 제재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은행들이 리스크에 걸맞은 프리미엄까지 포기하면서 출혈 경쟁을 하는 것도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싼 대출이자라는 당장의 달콤한 사탕이 언제 공적자금이라는 괴물로 돌변해 우리의 혈세를 먹어치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맺음말

국내은행은 높은 예대율로 해외 언론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예대율 계산에 있어서 우리가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은행들의 예대율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부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예대율이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극한의 위기에서는 다소 벗어나 한숨을 돌리게 된 만큼 향후 경기추이를 보아가며 예대율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들의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작년 3/4분기부터 크게 악화되었다. 거기다 작년 10월부터 정책금리가 하락하면서 이자수익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하지만 향후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소 희망이 있으며 이럴 때일수록 리스크관리에 힘쓰고 대출대상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KIF**

향후 우리 은행들은 리스크관리에 힘쓰고 대출대상에 대한 철저한 심사로 적절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